

프랑스 중등·고등 교육제도, 현황 및 과제

Marianne ADJIMAN, Arlette PATURE-MAURY, Sébastien BERTRAND

I -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2016 학년도)

Marianne ADJIMAN

표 1 : 개혁 전/후 비교

	HORAIREs ELEVES ACTUELS				HORAIREs ELEVES REFORME				
	6 ^e	5 ^e	4 ^e	3 ^e	6 ^e	5 ^e	4 ^e	3 ^e	
Français	5h	4h	4h	4h30	4h30	4h30	4h30	4h	Français
Maths	4h	3h30	3h30	4h	4h30	3h30	3h30	3h30	Maths
LV1	4h	3h	3h	3h	4h	3h	3h	3h	LV1 -Anglais
LV2			3h	3h		2h30	2h30	2h30	LV2
Hist. Géo. EC	3h	3h	3h	3h30	3h	3h	3h	3h30	Hist. Géo. EMC
SVT	1h30	1h30	1h30	1h30		1h30	1h30	1h30	SVT
Techno	1h30	1h30	1h30	2h	4h	1h30	1h30	1h30	Techno
SPC		1h30	1h30	2h		1h30	1h30	1h30	SPC
Arts Plastiques	1h	1h	1h	1h	1h	1h	1h	1h	Arts Plastiques*
Musique	1h	1h	1h	1h	1h	1h	1h	1h	Musique*
EPS	4h	3h	3h	3h	4h	3h	3h	3h	EPS
TOTAL / colonne	25h	23h	26h	28h30	26h	26h	26h	26h	TOTAL / colonne

2016 년 9 월 학기부터 프랑스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규 개정된 교육과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11-15 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4 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본 개정안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낙오자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18-24 세의 12%가 어떠한 학위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학생별 선택과목에 따라 시간표가 너무 다양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원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제안한다.

개정안의 신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중학교 과정이 크게 두 과정으로 구분된다. 우선 중학교 1학년은 3기, 즉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을 포함하는 ‘보강기’에 편입된다. 이를 통하여 초등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외국어와 중등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외국어의 일관성을 더욱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의 선택권은 유지된다. 즉, 개별 학생은 초등학교 때 배운 외국어를 제 1외국어(LV1)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도 있고, 중학교 1학년 때 새로운 외국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중학교 2,3,4학년은 4기 ‘심화기’에 해당한다.

1.2 현재 학생별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업시간은 주당 2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현 중학교 1학년 학생은 25시간의 수업을 듣고 2시간의 개별지도시간을 받는데 반해, 개정안에 따르면 수업은 23시간으로 감소하고 개별지도 시간은 3시간으로 증가한다.

1.3 또 다른 특징은 «전통» 교과목의 시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목들은 국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별 학교에서 교사들이 진행하는 학제간 실용교육(EPI) 또는 개별학습(AP)으로 일부 대체되었다. 중학교 4년 과정 동안 «전통» 교과목에 할애되었던 540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학제간 실용교육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학제간 실용교육은

- 과제별 접근을 통하여
 -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 심화시켜
 - 개별 학생 또는 공동의 구체적 성취도 향상을 가져온다.
- 그 세부 내용은 자율성에 입각하여 각 학교별로 결정한다.

1.4 같은 맥락에서, 모두가 동일한 교육 시간과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차원에 입각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존의 선택과목에 할애되었던 시수는 점차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라틴어와 그리스어 (중학교 3 학년 학생 17 만명)의 경우 중학교 2 학년 과정에서는 선택과목에서 사라진다. 즉, 학제간 실용교과목 «고대언어와문화»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

중학교 3, 4 학년에서는 주 3 시간이 아닌 2 시간 선택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는 프랑스 내에서의 다양한 논의의 결과로 채택된 사항으로서,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이러한 교육이 특히 «취약한» 지역에서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2011 년 총괄검토보고서). 이는 학생들에게 주간 28 시간 수업을 적용하게 되어 주 26 시간 수업 원칙에 위배된다.

1.5 2 학년 때 부터 제 2 외국어를 도입하는 상징적인 조치를 중심으로 외국어과목은 중학교 교육 개정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교육부 장관은 수 차례에 걸쳐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한 외국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현재 외국어는 중학교 모든 학생들이 적용받는 공통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해당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타 선택수업도 마련되어 있다.

유럽지역 수업과 아시아권 언어의 경우 아시아지역 수업이 2 시간 추가로 할당되었는데, 이 부분 역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폐지되었다.

해당언어 국가와의 양자협약 체결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고려하여 국제수업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중언어수업 (두 개 언어로의 동시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과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배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유지된다. (93%의 초등학생이 영어를 배운다는 점에서 약 7%만 해당된다.) 결국 이중언어수업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

II - 고등학교 교육과정

Arlette PATURE-MAURY

중학교 4학년의 진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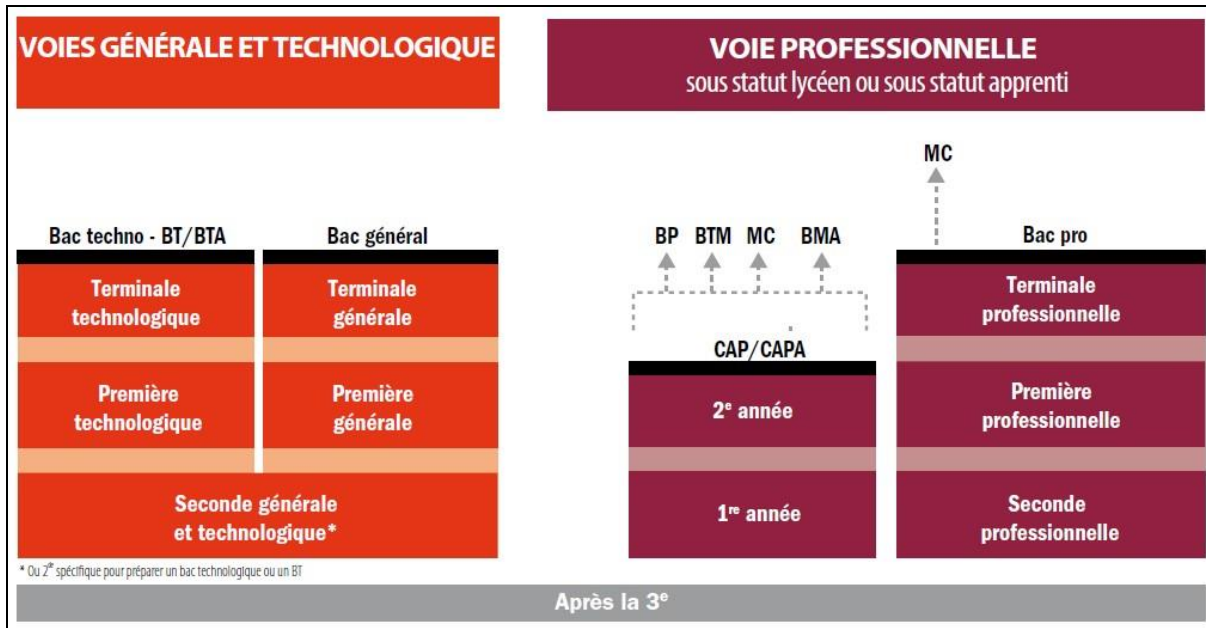
중학교 마지막 과정인 4학년은 진로교육과정으로서 한 해 동안 모든 학생들과 가족들은 담임선생님, 경우에 따라서는 진로교육담당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며 진로 계획을 수립한다. 교사협의회는 학생의 학업성적과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가족들의 희망 지망 내용을 검토한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가족들은 관련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최종결정 권한을 가지나, 두 개의 학구에서 가족들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채택된 경우가 있었다.

이후 학생은 본인의 계열에 따라, 일반고등학교나 기술고등학교의 경우 주거지를 반영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합격해야 하며, 직업교육의 경우에는 학생수에 따라 합격이 결정된다.

계열선택은 과거에 비해 훨씬 유연해지기는 했으나, 소위 말해 « 좋은 »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학부모들은 선택전략 (희귀언어, 예술활동)을 활용하거나 주소지 변경 등의 편법을 쓴다.

고등학교 배정 절차는 전국적으로 전산화되어 있어, 학생들은 Affelnet 사이트를 통해 지망한다. 물론 지원 기준은 각 학구에서 정의한다..

표2 - 중학교 4학년 이후 가능한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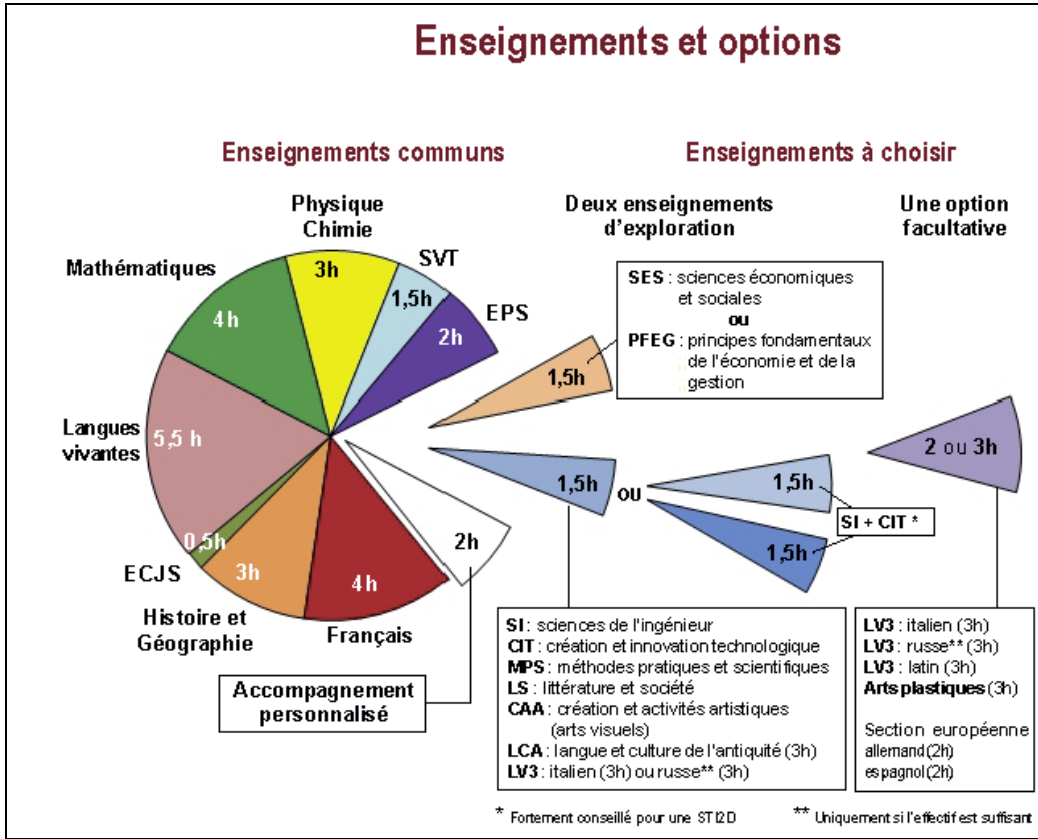
크게 두 가지 진로 방향이 존재한다.

1-일반 및 기술고등학교 (LEGT) - 전체학생의 70 %

고등학교 1학년은 새로운 진로로 진입하는 '결단기'이다.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기초교육 (교양)을 받으나, 탐구 교육과정 선택 여부가 이후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3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영역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든 탐구 교육과정이 모든 고등학교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표3 - 일반 및 기술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선택과목



고등학교 1학년 말에 학생은 다시 한번 진로를 변경하여 직업노선을 택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급하면 다양한 영역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중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4개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도록 하겠다. 총 41만 7천 명 이상 즉, 고2 학생의 84 % 가 이 4개의 영역에 해당된다.

일반 계열이 총 3 개 영역 (L,ES,S), 기술 계열이 1개 영역(STMG)이다. 가장 유망한 영역이 S, 즉 수학영역이다. 대부분의 가정들에게 있어 고등교육의 모든 진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가장 유망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2000년대부터 수학영역의 비중이 7% 증가하여 현재 37,6 %를 차지하고 하고 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46,5%) 에 비해 많으나 남녀비율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편 경제사회영역(ES)과 문학영역(L)은 여학생들의 비율이 각각 60%, 79%에 달하여 높다. 경제나 문학에 특별한 관심이 없음에도 수학영역에 들지 못하여 위 영역을 선택하게 된 학생들도 일부 있다. 경제사회영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10년간 약간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23%에 머무르고 있다.

표4 2014년 입학기준 일반 및 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별, 영역별 분포 현황

1 Répartition des élèves du second cycle général et technologique selon le sexe et la série à la rentrée 2014

Séries	Public			Privé			Public + Privé	
	Garçons	Filles	Total	Garçons	Filles	Total	Total	% de filles
Secondes								
GT de détermination	196 957	227 612	424 569	54 025	59 332	113 357	537 926	53,3
Techno TMD et hôtellerie, BT	1 134	1 415	2 549	202	243	445	2 994	55,4
Total secondes	198 091	229 027	427 118	54 227	59 575	113 802	540 920	53,4
Premières								
S	76 473	68 175	144 648	24 704	20 216	44 920	189 568	46,6
ES	32 196	50 161	82 357	11 154	15 733	26 887	109 244	60,3
L	9 053	35 358	44 411	2 082	7 756	9 838	54 249	79,5
STI2D (1)	25 497	1 877	27 374	3 318	173	3 491	30 865	6,6
STL	2 949	4 111	7 060	626	647	1 273	8 333	57,1
STMG	24 905	28 909	53 814	5 317	4 908	10 225	64 039	52,8
ST2S	1 636	13 514	15 150	838	6 175	7 013	22 163	88,8
STD2A	549	1 623	2 172	266	685	951	3 123	73,9
TMD	109	164	273	5	8	13	286	50,1
Hôtellerie	1 033	1 078	2 171	181	207	388	2 559	50,1
D'adaptation	19	16	35	4	15	19	54	57,4
Brevet de technicien	82	175	257	15	35	50	3 07	68,4
Total premières	174 561	205 161	379 722	48 510	56 558	105 068	484 790	54,0

이에 반해 문학영역은 이후 취업의 문이 좁다는 이유로 1990년대 말에 7% 대로 떨어졌고, 현재는 11,5%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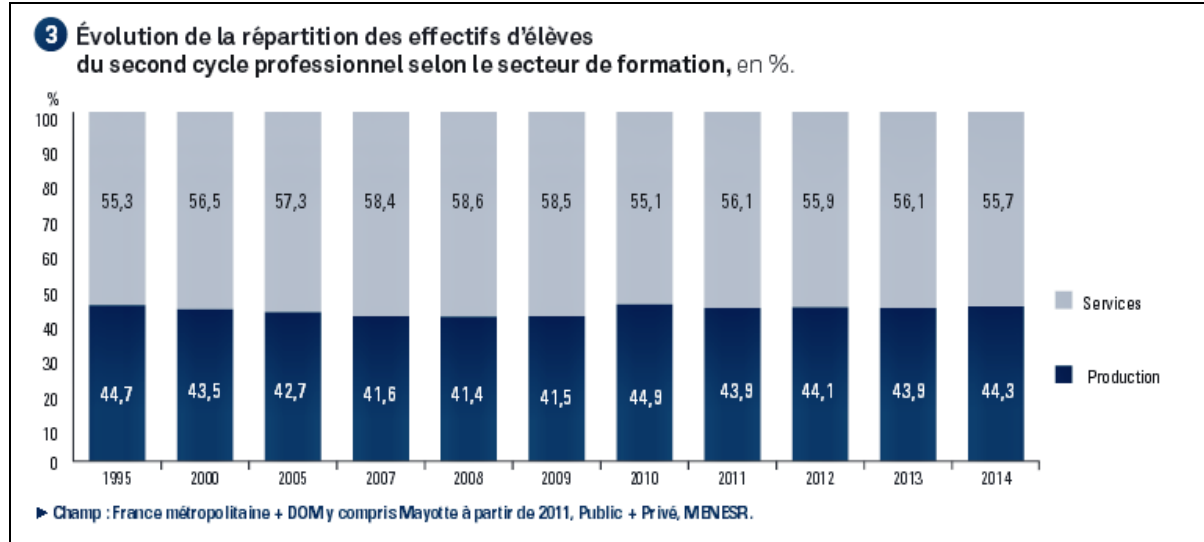
과학기술경영관리(STMG) 영역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지는 않으나, 남학생들 위주로 직업 노선을 원치 않을 경우 많이 선택한다. 이 영역의 학생들이 바칼로레아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2학년 학생들의 20%가 해당되며, 2000년 부터 점진적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5%). 여학생들의 비율이 남학생들 대비 다소 높다 (52%).

2학년 말에 학생들은 바칼로레아의 한 과목인 프랑스어 시험을 치루게 된다.

일반 및 기술계열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3년 말에 치루는 바칼로레아를 끝으로 중등교육을 마무리 짓게 된다. 바칼로레아는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에 대한 논술 및 구술 시험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의 배점계수는 학생의 선택 영역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역사-지리 과목의 경우, 경제사회 영역은 5, 문학영역은 4, 수학영역은 3, 과학기술경영관리 영역은 2로 주어진다. 동일한 과목이라도 교육과정과 시험문제는 영역별로 다르다. 외국어 관련 유럽기준에 맞추어서 외국어과목은 학기 중에 평가되나, 최종 시험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직업고등학교 (LP) - 전체학생의 30 %

표 5 직업고등학교 계열별 (생산직,서비스직) 학생수 비율 변화



학생들은 단기 코스 2년 과정을 마치고 국가 자격증인 직업적성자격증(CAP)을 취득하여 바로 취직을 하거나 학업을 이어가 직업바칼로레아(Bac pro)를 취득할 수 있다.

또는 직업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여 2년 과정을 마치면 직업교육이수증(BEP)을 받고 3학년 때 직업바칼로레아(Bac pro)를 준비하여 취득하면 진학을 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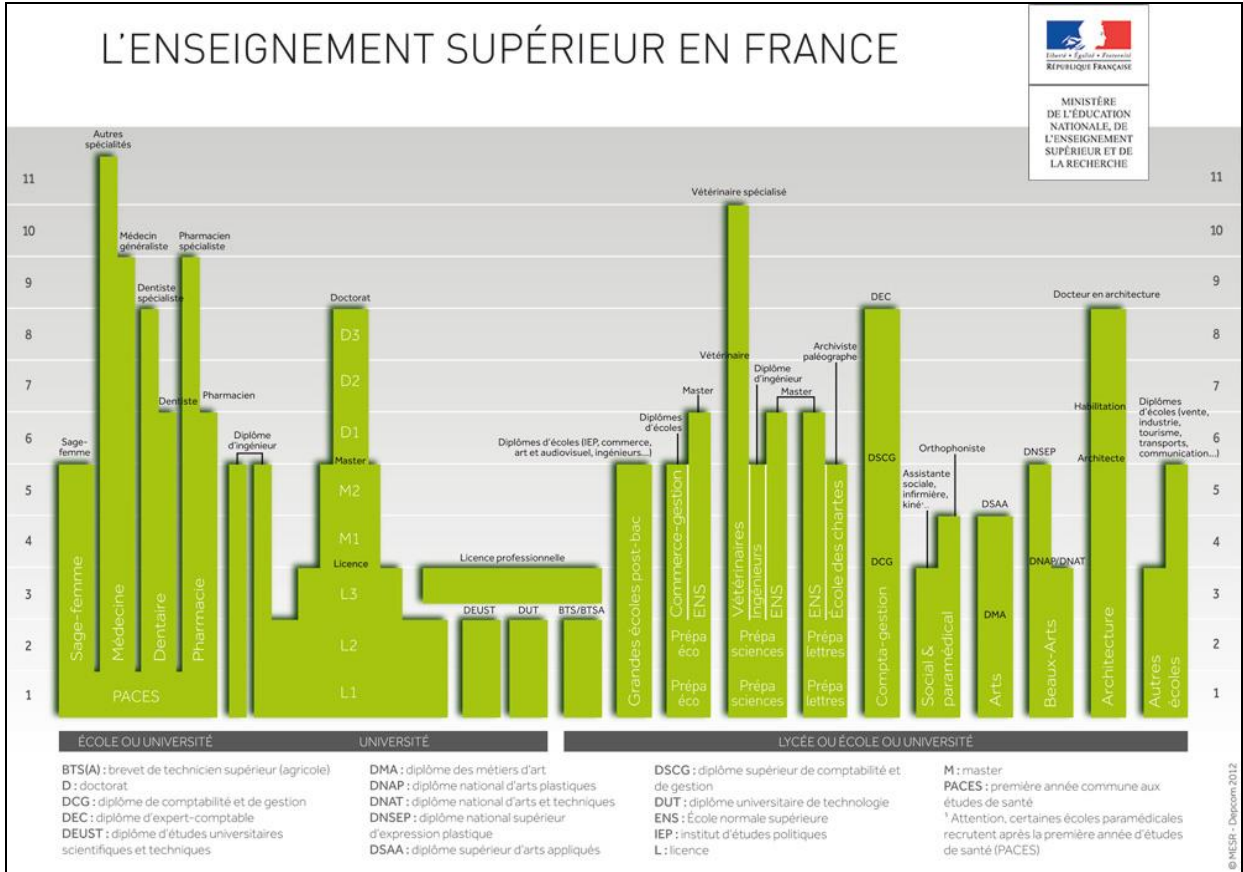
사실상 특정 직업에 대한 관심 보다는 성적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CAP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의 82%와 직업고등학교 1학년 과정 진학 학생의 57%가 이미 한 차례 이상 유급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반해 일반 및 기술고등학교 진학생 중 20% 만이 유급을 경험하였다. 다시 말해 학생들과 자녀들의 사회적 성공을 기대했던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유망하지 않은 진로로 간주된다. 한편 이 진로를 택한 학생들의 52%는 노동자, 퇴직자 또는 무직자 가정의 자녀들이었으므로 나타났다.

두 개의 직업 과정의 정원은 지난 20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계열별로 생산직 45%, 서비스직 55%로 구분된다.

III - 고등 교육

Arlette PATURE-MAURY & Sébastien BERTRAND

표 6 프랑스 고등 교육



프랑스 교육 과정은 유럽 통합 교육 시스템(LMD : 학사(Licence) 3년, 석사(Master) 2년, 박사(Doctorat) 3년)을 따르고 있다. 전문기술 자격증(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취득과 같은 일부 단기 기술 교육 및 그랑제콜 입시 준비반은 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이외 학생들은 대학교 및 주로 사립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대학교(Université)는 공립이며, 별도의 입학 시험이 없다. 학비는 저렴한 편으로, 최근 인상되어 200유로 정도이다. 대학 입학 자격 취득자 전원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매년 1월부터 국가 시스템인 대학 입학 자격 허가(APB) 프로그램에 등록된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성적은 본인이 희망한 대학교로 전송되므로, 1지망에 지원한 학교에 모두 입학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연령층 별 대학 진학률을 80%까지 높이고자 했던 정치적 의지로 인해 1980년 이후 고등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 수는 두 배로 증가하였지만, 그 반면 상대적 대학생 수는 1980년 고등 교육 과정 학생의 67%에서 2014년 56%로 감소였다. 대학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40%이며, 28%의 학생만이 3년간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교에서는 점점 취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낙제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혼란스러운 중등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였다. 대학교 입시 경쟁은 치열하지 않으며, 다른 분야의 교육 과정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기술 전문 대학 혹은 전문 기술 자격증 취득 과정 입학은 서류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정원에 한해서만 입학이 가능하다. 그랑제꼴 준비반이 있는 학교 외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선발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류 심사를 통해 준비반에 입학하여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후 선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생 수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상경계 학교 학생 수는 8.5배 증가하였다.

출처: 국가 교육 고등교육 연구부 2015년 지표 및 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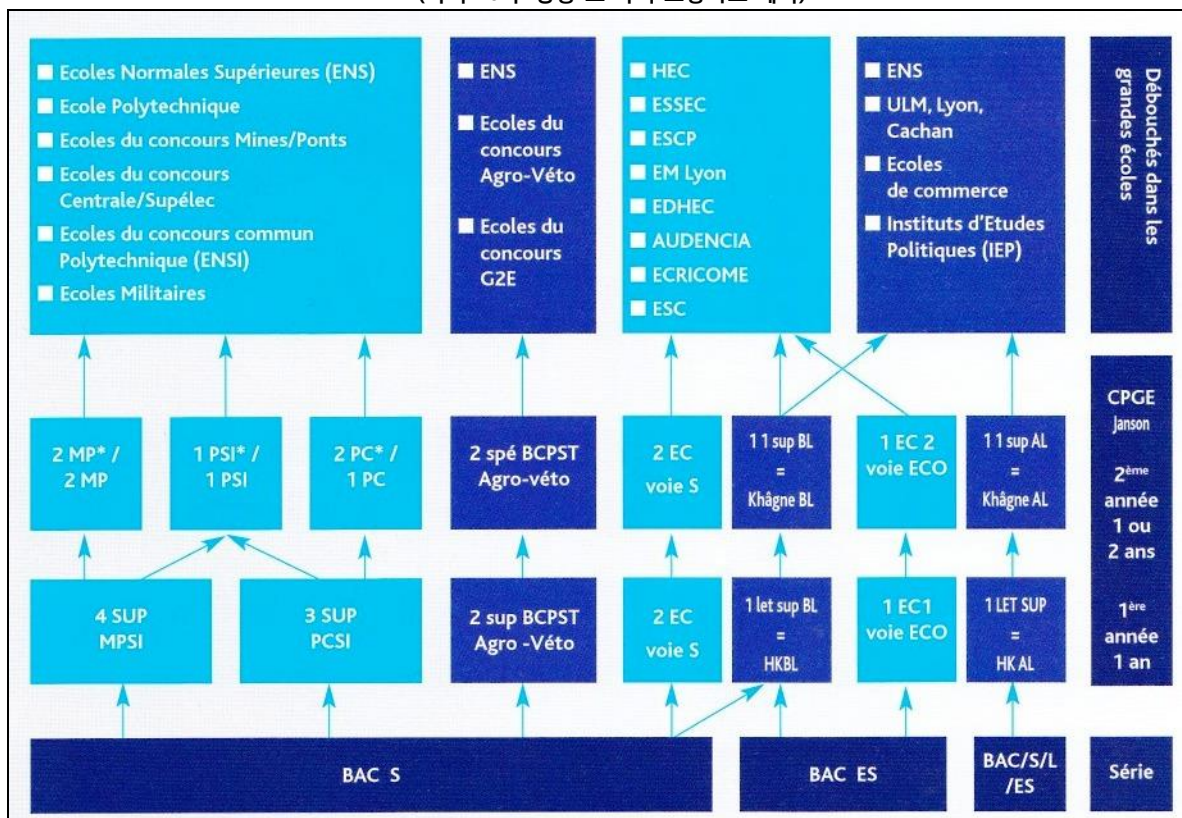
표 7 학생, 대학생 및 직업교육생 수 변화추이 (천 단위)

1 Evolution des effectifs d'élèves, d'étudiants et d'apprentis, en milliers.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hors Mayotte	2011 y.c. Mayotte	2013	2014p	Évolution (%) 2014/2013
Premier degré Education nationale	7 396,3	6 953,4	6 552,0	6 624,6	6 664,3	6 657,7	6 710,7	6 760,6	6 788,6	0,4
Préélémentaire	2 456,5	2 644,2	2 540,3	2 612,0	2 539,1	2 545,0	2 561,8	2 580,9	2 574,9	-0,2
Élémen taire (CP-CM2)	4 810,0	4 218,0	3 953,0	3 962,0	4 080,8	4 067,6	4 102,1	4 132,6	4 165,7	0,8
ASH	129,8	91,2	58,7	50,5	44,3	45,1	46,8	47,2	48,0	1,7
Second degré Educat ion nationale	5 309,2	5 725,8	5 614,4	5 485,4	5 353,2	5 384,5	5 415,6	5 472,8	5 497,1	0,4
Premier cycle	3 261,9	3 253,5	3 290,9	3 139,0	3 126,4	3 165,9	3 185,2	3 237,6	3 243,6	0,2
Second cycle professionn el	807,9	750,0	705,4	724,0	705,5	691,1	694,7	670,3	663,0	-1,1
Second cycle général et technologique	1 124,4	1 607,6	1 501,5	1 512,9	1 425,7	1 433,1	1 440,0	1 470,6	1 499,9	1,9
Enseign ement adapté du second degré (Segpa)	114,9	114,6	116,6	109,5	95,6	94,5	95,8	94,4	91,7	-2,9
Second degré Agriculture (1)	117,1	116,2	151,3	154,9	149,9	153,3	153,6	148,6	143,7	-3,3
Scolarisation dans établissements de la Santé (1)	96,2	88,2	81,4	76,3	71,5	72,6	72,6	71,7	70,3	-1,9
Centre de formation des apprentis (2)	244,1	226,9	376,1	395,6	433,5	442,9	443,3	430,1	415,2	-3,5
Apprentis de l'ensei gnement secondaire	225,4	219,0	314,7	315,2	314,9	313,1	313,4	286,3	269,9	-5,8
Apprentis de l'ensei gnement supérieur	0,0	1,3	51,2	70,6	111,4	122,9	122,9	138,0	139,5	1,1
Préa ppren tis en CFA	18,7	6,6	10,2	9,7	7,2	6,9	6,9	5,8	5,9	1,4
Enseignement supérieur	1 184,1	1 717,1	2 160,3	2 283,3	2 319,6	2 350,6	2 350,9	2 432,0	2 470,7	1,6
Universités (hors CPGE, préparation DUT et formations d'ingénieurs)	796,1	1 075,1	1 256,4	1 284,3	1 299,3	1 310,9	1 310,9	1 355,9	1 385,8	2,2
CPGE et prépa s intégrées des écoles d'ingénieurs	42,9	68,4	76,2	80,2	87,6	88,8	88,8	93,5	95,0	1,6
STS	67,9	199,3	238,9	230,4	242,2	245,8	246,0	255,0	255,2	0,1
Préparation DUT	53,7	74,3	116,9	111,3	115,7	115,0	115,0	115,8	116,4	0,5
Formations d'ingénieurs (y compris en partenariat)	40,0	57,7	96,6	104,4	122,0	130,4	130,4	137,3	141,6	3,1
Écoles de commerce, gestion, comptabilité et vente (hors BTS)	15,8	46,1	63,4	88,4	121,3	126,7	126,7	134,2	134,3	0,1
Écoles paramédicales et sociales (2)	91,7	74,4	93,4	131,7	137,4	140,6	140,7	135,1	135,1	0,0
Autres établissements d'ensei gnement supérieur (3)	76,0	121,7	218,5	252,6	194,1	192,4	192,4	205,3	207,4	1,0
dont autres établis sements d'ensei gnement universitaire (4)	n.d.	35,5	36,2	48,7	58,7	57,6	57,6	61,3	60,5	-1,3

그랑제꼴 준비반(CPGE) – 특수 시스템

표 8 - 다양한 분야의 준비반 및 취업로
(파리 16 구 장송 드 사이 고등학교 예시)



일반적으로 고등 교육의 « 우수 과정»으로 여겨지는 그랑제꼴 준비반(CPGE)은 고등 교육에 들어선 학생들에게 첫 2-3 년간 특별 과정을 제공한다. 이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 목표

-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과 효율성, 문학 또는 비판적 과학 분석력을 겸비한 집중 교육을 제공한다.
- 포괄적인 지식 및 학습 방식 습득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기간 또 더 나아가서는 사는 동안 의지하게 될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프랑스 과학, 경제, 문학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250 군데의 기관 및 그랑제꼴 입학을 보장하고 있다. 준비반 이후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프랑스 및 해외 대학에서 인정해주는 교육 과정 이수증이 주어진다.

2 - 계열

- 경제 및 상경 계열 : 학생들은 수학, 경제, 외국어, 역사 및 일반 문화 (인문 및 철학)에 집중한 학업 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이 계열은 세 분야로 세분화된다.
 - > 과학
 - > 경제
 - > 기술
- 문학 계열 : 두 분야로 세분화되며, 공통 교육과정에는 인문, 철학, 역사, 지리, 외국어가 있다.
 - > 인문 : 고대 언어 포함
 - > 인문 사회과학 : 경제, 사회학, 수학 포함
- 과학 계열 : 아래와 같은 많은 취업로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가 마련되어 있다(첫 해에는 7 분야, 그 다음 해는 8 분야).
 - > 공학 학교
 - > 고등 사범학교(연구)
 - > 국립 농학 및 수의학 학교
 - > 예술 및 디자인 학교

3 - 방식 및 구조

- 반 배정(또는 동기)은 고등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 동기의식 »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여럿이 일하는 습관, 상부상조, 연대의식, 공동 과제 수행).
- 교원에 의한 학생 관리 (교사, 교육 상담사 등): 학생들은 철저하면서도 세심한 관리를 받게 된다. 교사들은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교육 상담사는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 곁에서 도움을 준다. 교사 및 상담사들은 교육을 조직하여 학생들이 막대한 양의 과제와 강도 높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
- 학제적 교육: 준비반 학생은 최소 6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 그 중 일부 과목은 모든 교육 과정 공통이다(언어, 인문/철학). 수업 시간은 계열에 따라 다르다(25 시간-35 시간).
- 학기 간 지속적 평가: 숨가쁘게 쏟아지는 수업 중 과제, 모의 고사, 주 별 구두 시험(« 모의시험 »이라 부름)을 통해 학생들이 입학 시험에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주기적으로 보충 활동을 조직(공연 관람, 강연, 연합활동, 연말 여행)하여 학급 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문화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거나 학생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가능성을 마련해준다.

4 - 선발 및 쟁점

프랑스 및 해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이 이루어진다. 준비반이 있는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일부 학교는 학교의 명성이나 그랑제꼴 진학률로 인하여 다른 학교보다 지원자가 많기도 하다. 파리와 지방 대도시에 있는 그랑제꼴 준비반이 경쟁률이 가장 높다. 2016년 1,300명 정원인 장송 드 사이 (Janson de Saily) 고등학교에 17,400명이 지원했다.

종종 그랑제꼴 준비반은 엄격한 교육 과정을 이유로 비판 받기는 하나, 여전히 학생들과 자녀에게 더 큰 교육을 주고 싶은 부모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그랑제꼴 준비반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약 95,000 명 정도이며, 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0 년 87,600 명, 2000 년 76,200 명).

그랑제꼴 진학 후 대개 학생 스스로가 이 교육 시스템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학생들 중 해당 계열의 준비반 교사가 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그랑제꼴 준비반은 빈곤 계층 학생 수용(그랑제꼴 준비반 학비는 무료이나 많은 이들이 « 감당할 수 없는 » 교육에 대해 우려)과 프랑스 대학과의 관계를 쟁점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몇 해 전부터 일반 대학교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III – 2016년 프랑스 교육 정책의 쟁점 및 도전 과제

Arlette Pature-Maury

경제 상황(경제 활동 인구 10% 실직)과 극단주의 무장단체 테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언론과 정치계에서는 당을 막론하고 쇠퇴론을 논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학교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학교가 성공적으로 일궈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청난 질타를 받는다. 하지만 매우 모순적이게도 사회와 정치계는 학교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학교가 직접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 - 심층적 문제 : 프랑스 학생들의 실망스러운 결과

두 개의 지표가 프랑스 교육계에 경종을 울렸다. 우선, 150,000명의 학생(연령층의 20%)이 학위 없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대개 결석이 잦았던 이 « 낙오 학생 »은 경제 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며 이들 중 일부는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또, 2012년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결과를 통해 프랑스 학생 성적이 매우 낮으며 특히 수학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들 중 성적이 저조한 학생이 9%였던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22%에 달했다. 또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31%였지만 프랑스는 13%에 그쳤다. 게다가 이 결과를 통해 2003년에 비해서 한 해 동안 -1.5%의 변동이 있단 걸 알 수 있었다. 또 사회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학생과 부유한 가정 학생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학교 재정립을 위한 2013년 7월 8일 법은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등 교육을 강조하며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나섰다. 교육은 « 따듯 »해야 하며 평가는 성적이 아닌 능력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수치화된 성적 시스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 법을 통해 학교가 자립성을 가지며 자유롭게 전체 수업 시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2016년 신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많은 교사들은 교육 수준이 낮아지고 학생들이 더 이상

같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립 교육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 개혁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 낙오 학생 » 또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교육을 받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정부는 직업 교육을 실행하고자 한다. 사실 직업 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70%가 쉽게 취업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가족들은 직업 교육이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기업 대표들은 양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직업 교육이 효율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무경력 젊은 학생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정부가 « 책임과 연대의식 협정 (Pacte de Responsabilité et Solidarité) » 을 내놓았을 때, 그 목표하는 바는 직업 연수생 수를 2017년까지 500,000명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당시 연수생 수는 425,000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교육부와 노동부 장관들은 많은 곳을 다니며 관련 인력을 동원하였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200,000유로가 지원되기도 했다. 그 첫 결과는 고무적이었는데, 2015년 여름 계약 건수가 6,8% 증가하였다.

표 9 사회적 계층 구분에 따른 2014학년도 중등 교육 이수생 (단위 : %)

2 Les élèves du second degré selon l'origine sociale (1) regroupée à la rentrée 2014, en %.

	Public					Privé				
	Favo-risée A	Favo-risée B	Moyenne	Défavo-risée	Total	Favo-risée A	Favo-risée B	Moyenne	Défavo-risée	Total
Premier cycle général (6 ^e à 3 ^e)	20,0	12,6	27,3	40,1	100,0	36,9	14,5	29,7	18,9	100,0
ULIS, DIMA, dispositifs relais	7,6	7,5	22,7	62,3	100,0	23,3	11,4	29,8	35,4	100,0
Segpa	2,2	5,2	19,8	72,8	100,0	7,6	9,4	30,0	53,1	100,0
Total premier cycle (y compris Segpa)	19,3	12,4	27,0	41,3	100,0	36,7	14,4	29,7	19,2	100,0
Seconde générale et technologique	28,2	14,9	27,3	29,8	100,0	47,2	14,5	26,0	12,4	100,0
Première et terminale générales	35,1	15,6	25,7	23,8	100,0	52,1	14,0	23,9	9,9	100,0
Première et terminale technologiques	17,6	14,9	29,6	38,0	100,0	30,8	17,2	31,6	20,4	100,0
Total second cycle GT	29,4	15,3	27,0	28,5	100,0	47,2	14,7	25,8	12,3	100,0
CAP	4,0	7,1	22,5	66,4	100,0	10,5	12,5	32,1	44,9	100,0
Bac pro, BMA	7,5	10,6	27,6	54,2	100,0	16,4	15,1	34,2	34,2	100,0
Autres niveaux IV et V	10,1	11,2	28,7	50,0	100,0	11,4	13,0	30,2	45,4	100,0
Total second cycle professionnel	7,0	10,0	26,8	56,3	100,0	15,5	14,7	33,8	36,0	100,0
Ensemble	20,6	12,9	27,0	39,6	100,0	37,2	14,5	29,1	19,2	100,0

► Champ : France métropolitaine + DOM y compris Mayotte, Public + Privé, MENESR.
 1. Voir les regroupements dans la rubrique « Définitions ».
 Lecture : 40,1 % des élèves du premier cycle général (6^e à 3^e) scolarisés dans le secteur public sont issus d'une catégorie sociale défavorisée.

2 - 사회적, 교육적 차별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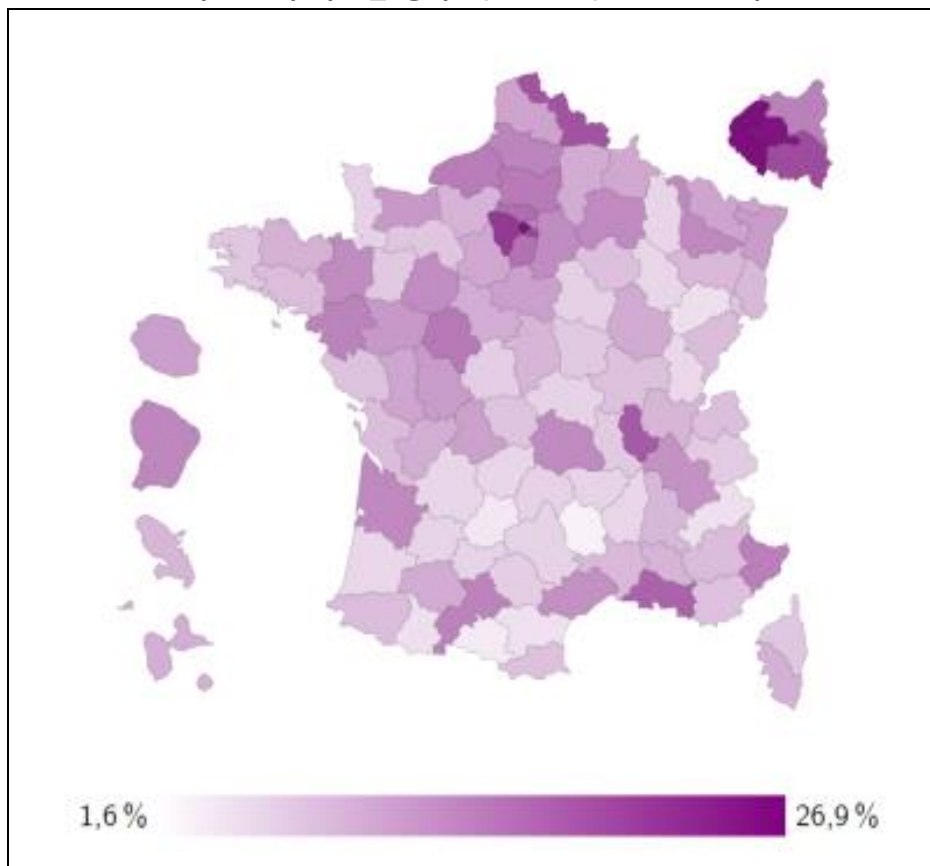
대도시와 중도시에는 사회적, 교육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학생이 많은 학교가 위치한 « 교육적 낙후지역 »이 존재한다. 한 학교 안에서 학생 수준이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두고 종종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토지세, 주거비, 공영주택 위치가 그 첫 번째 이유이며 다른 이유는 교사의 자질이다. 사실 경력이 길면 발령에 관여할 수 있게 되고 노련한 교사들은 대개 일하기 어려운 학교를

피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교사들만이 남게 된다. 학생의 10%는 빈곤 가정 출신(노동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계층)의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2/3가량 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중학교 4학년 학생 중 5%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최소 60%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에릭 도고 (Eric Dogo) 직업 고등학교 교감은 이를 두고 교육적 인종차별이라고까지 말한다. 도고 교감은 직업 바칼로레아 반 전체가 흑인 여학생인 점을 예로 들며 «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자신도 다른 아이들처럼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 » 라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불평등은 직업 고등학교의 직업적성자격증 과정에 들어가면서 특히 심화된다. 학생의 4%는 매우 부유한 계층 출신이나 66% 이상의 학생들은 빈곤층 출신이다. 일반 및 기술 고등학교에서도 기술 전문 과정 2학년생과 3학년생들의 38%가 빈곤층 출신인 반면 17,6%만이 매우 부유한 가정 출신이다.

다양한 계층, 국적, 도시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에서도 격차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표 10- 지역별 학교간 사회적 격차(중학교 4학년)
국립 교육 시스템 평가원(CNESCO) 2015년 조사



색이 진할수록 격차가 심화

이론적으로 1975년 아비(Haby) 개혁 이후 중학교에서 수준별 학급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스페인어보다는 독일어를 선택하거나 중국어 같이 드문 선택을 하는 경우 또 고대어(라틴어나 그리스어)나 이중 언어 반(중학교 1학년부터 두 개 언어 학습) 선택으로 인해 수준별 학급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국립 교육 시스템 평가원(2014년 창립된 독립 기관)에서는 « 사회적 격차는 프랑스 사회의 시한 폭탄 »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35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1981년 교육우선지역(ZEP)을 만들어 가장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목표와 대책을 규정하고 교육 우선 지역을 새롭게 실행하기 위한(1990-1997-2006) 수 차례의 공문이 있었고 2014년에는 우선교육을 재정립하였다. « 낙후한 »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00년에는 이러한 학교에 교육 우수 학습 기관을 창설하기도 하였다 (유럽, 스포츠 센터, 문화 기관들과 협력). 이들 학교는 인적 지원을 더 받게 되며 교사들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 많은 공문과 조치를 보면 여전히 이 정책들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든다. 국립 교육 평가원(CNESCO)에서 발표한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낙후된 학교를 더 이상 피하지 않도록 가족들과 소통
- 학생들의 교육적, 사회적 불균형에 대해 직원 교육
- 고등학생들의 더 활발한 이동을 위한 교통 정책
- 언어 중점 교육 정책

3 - 급여 관리 : 불안정한 예산 조정

본질적으로 교육은 공립으로(80%) 이루어지나, 사립 학교들은 프로그램을 존중한다는 약속 하에 국가와 계약을 맺고 교사 급여는 국가에서 관리하게 된다. 교육 예산은 국가의 가장 우선시 되는 예산으로 국내 총생산의 6.1%에 해당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치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 정부 당시에는 은퇴 교사에 대한 대체 인력을 뽑지 않았으며 교사에 대한 기본 교육의 대부분을 폐지하였다. 또 일부 수업에 대한 시수를 줄였다. 예를 들어 이과 고교 2학년생 바칼로레아 선 시험 과목이었던 역사 지리가 3학년 선택 시험 과목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교사 당 수업 수가 늘게 되었다. « 더 벌기 위해 더 일하자 » 라는 문구는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추가 시간에 대해서는 면세), 이를 이유로 일자리를 없앨 수 있었다. 또 임금은 동결되었다.

2012년 올랑드 정부 교체와 함께 정책은 변화를 맞았다. 새롭게 설립된 학교는 기본 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고등 교육 학교(ESPE)는 2013년 신학기에 설립되었지만, 정기 교육을 여전히 줄여야 했고, 이 교육 참여마저도 자발성에 맡기고 있다. 정부는 6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최소 2016년 3월에는 공무원 봉급 기준에서 1% 인상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2017년 대선용 민중 선동 정책 정도로 여기고 있다. 동일 학위에 대한 봉급 인상은 몇 유로 차이 밖에 없을 뿐, 여전히 프랑스 교사들은 다른 분야의 직장인에 비해 28% 낮은 봉급을 받고 있다. OECD 회원국과 비교 해보면, 중등 교육 전기 과정(중학교)의 15년 경력 교사의 평균 봉급은 41,245유로(2013년 기준)인 반면 프랑스의 경우 33,500유로이다. 이 같은 격차는 중등 교육 후기 과정(고등학교)에서도 나타나는데, 프랑스는 36,897유로인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44,600유로이다.

4 - 또 다른 도전 과제 : 교사 채용

대한민국 대사관 교육 분야 간행지 3호 (2015년)에서 « 2급 교사는 한국 고등학생의 1/3이 가장 되길 원하는 직업이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는 프랑스의 상황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학급에서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공개적으로 교사가 되길 원한다고 말하면 놀림을 당하거나 동정을 받게 될 것이다. 교사란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는 급여가 원인이긴 하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종종 언론에서는 교사란 직업에 대해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육부장관들까지도 이를 서슴지 않는다. 1997년 클로드 알레그르(Claude Allègre) 교육부장관은 « 매머드의 기름기를 걷어내야만 한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프랑스 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굳혀 버렸다. 휴가 기간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피곤한 직업으로 여겨지며 경력이 짧은 젊은 교사들은 발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승진 점수가 낮은 탓에 가장 힘든 학교로 발령이 날까 우려하고 있다.

매년 국가는 과목별 임용 시험 합격자 수를 정하고 있는데, 시험 응시생들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유난히 응시생이 많은 수학과 영어 과목 교사만 일부 채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사란 직업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초봉을 인상하였고, 숙련된 교사들이 일하기 어려운 학교에 오래 근무하거나 부임되는 걸 꺼리지 않도록 보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 문화국 » 복원에 대한 목표도 밝혔다 (뱅상 페이옹(Vincent Peillon) 2012년 교육부 장관 참조). 그러나 현재 교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상호의존적인 이 네 가지만은 아니다. 이는 다만 언론과 매 선거마다 정치 공약으로 가장 많이 다뤄진 부분을 선택하여 기술한 것이다.

출처 :

<http://www.gouvernement.fr/action/le-plan-de-relance-de-l-apprentissage>

<http://www.education.gouv.fr/cid57096/reperes-et-references-statistiques>

<http://www.education.gouv.fr/cid57111/l-education-nationale-en-chiffres>

<http://www.cnesco.fr/fr/tag/rapport/>